

베드로후서 1:4와 신격화

이충만

(고려신학대학원, 조교수, 조직신학)

- I. 도입
- II. 베드로후서 1:4
- III.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
- IV. 베드로후서 1:4과 그레고리우스
- V. 결론

[초록]

신격화(*θεοποίησης* 혹은 *θέωσις*)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서방 신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루터파 신학자 중에서는 “새 핀란드 학파”(the New Finnish School)라 칭해지는 마르틴 루터(1483-1546)의 신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장을 연 투오모 만네르마(Tuomo Mannermaa, 1937-2015)가 신격화를 루터파 전통 안에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토마스 F. 토렌스(Thomas F. Torrance, 1913-2007)가 신격화를 칼빈과 개혁주의 전통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신격화는 “매력적임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신비”(mysterium fascinans et tremendum)로서 여전히 논의해야 할 4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격화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희석한다; 둘째, 신격화는 우리 밖에서(*extra nos*) 이루어진 칭의의 법적 측면을 약화한다; 셋째, ‘신격화’라는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거나 혹은 불명확하다; 넷째, 신격화에 대한 성경 주석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신격화’와 관련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신격화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베드로후서 1:4를 해석하여 신격화에 대한 성경 주석적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헬라 교부 중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of Nyssa, c.335-c.395)의 신격화 이해를 다루어 신격화에 대한 교부신학적 이해를 제시한다. 이로써, 본 논문은 베드로후서 1:4와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신격화는 하나님의 본질(*οὐσία*) 혹은 본성(*φύσις*)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덕(에네르게이아, *ἐνέργεια*)에 참여하는 것임을 논증한다. 또한, 베드로후서 1:4와 그레고리우스의 기독교론 중심적 신격화는 인간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밖’(extra nos) 있는 기독교론적 가능성임을 제시함으로써, ‘법정적 칭의’를 통해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하는 것에 신격화가 부합함을 본 논문은 논증한다.

키워드: 신격화, 베드로후서 1:4,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본질, 에네르게이아, 법정적 칭의

논문투고일 2022.07.31. / 심사완료일 2022.08.22. / 게재확정일 2022.09.07.

1. 도입

신격화(*θεοποίησης* 혹은 *θέωσις*)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서방 신학자들에 게 매력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비록 독일의 교의사가인 아돌프 폰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은 신격화를 이교적이고 헬라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비판하였지만,¹ 현대 신학자들은 그의 비판과 달리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 안에서 이 주제를 수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루터파 신학자들의 연구이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신학에 대한 “새 핀란드 학파”(the New Finnish School)라 칭해지는 해석의 장을 연 투오모 만네르마(Tuomo Mannermaa, 1937-2015)는 루터의 칭의 이론과 동방정교회 신학의 ‘신격화’ 사이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였다.²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F. 토렌스(Thomas F. Torrance, 1913-2007)는 신격화와 존 칼빈(Jean Calvin, 1509-1564)의 신학 간의 화해를 시도하였다.³ 그는 칼빈의 신학과 개혁주의 전통 안에 신격화를 긍정적으로 논의할 공간이 충분하며, 이런 논의를 통해 개혁주의적이고 현대 문화에 매력적인 구원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⁴

1 Adolf von Harnack, *History of Dogma*, trans. Neil Buchanan (London: Williams & Norgate, 1896-1899), 2:317-318, 3:121-130; cf. Basil Studer, “Divinizzazione”, in Angelo di Berardino and Gianluca Pilara ed., *Nuovo dizionario patristico e di antichità cristiane* (Genova: Marietti, 2006), 1:1458b. 신격화에 대한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의 비판도 폰 하르낙의 것과 유사하다. Paul L. Gavrilyuk, “The Retrieval of Deification: How a Once-Despised Archaism Became an Ecumenical Desideratum”, *Modern Theology* 25 (2009), 647-648.

2 Tuomo Mannermaa, *Der im Glauben gegenwärtige Christus: Rechtfertigung und Vergottung: zum ökumenischen Dialog* (Hannover: Lutherisches Verlagshaus, 1989); Oswald Bayer et al., eds., *Caritas Dei: Beiträge zum Verständnis Luthers und der gegenwärtigen Ökumene. Festschrift für Tuomo Mannermaa zum 60. Geburtstag* (Helsinki: Luther-Agricola-Gesellschaft, 1997); Carl E. Braaten and Robert W. Jenson, eds., *Union with Christ: The New Finnish Interpretation of Luth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3 토렌스의 신격화 수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Myk Habets, *Theosis in the Theology of Thomas Torrance* (Farnham: Ashgate, 2009).

4 Heleen E. Zorgdrager, “On the Fullness of Salvation: Tracking Theosis in Reformed Theolog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8 (2014), 4:369-370.

그는 “참여”(participation)와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 cum Christo)에 대한 칼빈의 신학을 재해석하면서 신격화와의 상관성을 모색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다는 것이 인간이 신적인 삶에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즉 토렌스에게 위격적 연합은 ‘화해시키는 연합’(reconciling union)이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대립은 화해되었고, 인간은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이끌어졌다. 화해는 신자들이 실제로 신성에 참여(the real participation)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가능해진 것이다.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인간은 구속되고 치료되며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⁶ 토렌스와 함께 칼 모셀(Carl Mosser), 줄리 칸리스(Julie Canlis), 개논 멀피(Gannon Murphy), J. 토드 빌링스(J. Todd Billings), 그리고 헬레인 E. 조르흐드라허르(Heleen E. Zorgdrager)와 같은 신학자들의 이름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⁷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신격화는 “매력적임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신비”(mysterium fascinans et tremendum)로서⁸ 큰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의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 신격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 대표적인 학자는 루이스 B. 스메더스(Lewis B. Smedes)⁹와 브루스 L. 맥코맥(Bruce L. McCormack)¹⁰이다. 특히 맥코맥은 신격화에

5 Thomas F. Torrance, *The Mediation of Christ* (Edinburgh: t&t Clark, 1989, 1992), 65; Habets, *Theosis in the Theology of Thomas Torrance*, 106.

6 Zorgdrager, “On the Fullness of Salvation”, 367.

7 이 신학자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Zorgdrager, “On the Fullness of Salvation”, 365, 369을 참고하라. 조르흐드라허르는 이 논문에서 이 신학자들의 주장을 잘 요약하고 있다.

8 Zorgdrager, “On the Fullness of Salvation”, 365.

9 Lewis B. Smedes, *Union with Christ: A Biblical View of the New Life in Jesus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83).

10 Bruce L. McCormack, “What’s at Stake in Current Debates over Justification?”, in Mark Husbands and Daniel J. Treier ed., *Justification: What’s at Stake in the Current Debate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81-117; McCormack, *Orthodox and Modern: Studies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235-260; McCormack, “Union with Christ in Calvin’s Theology: Grounds for a Divinization Theory?”, in David W. Hall ed., *Tributes to John Calvin: A Celebration of His Quincentenary*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10),

대한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전형적인 비판을 통찰력 있게 제기하였다. 크게 두 가지 문제이다. 첫째, 신격화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를 희석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 본질 혹은 본성에 참여함을 말하는 신격화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존재론은 개혁주의의 전통에 설득력이 없다.¹¹ 고대 그리스 철학의 존재론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구분이 약하지만, 개혁주의 전통은 이 구분을 분명히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구원론적 측면이다. 맥코맥은 법정적 칭의를 고수하고 칭의와 중생 사이의 논리적 순서를 강조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본성적 요소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 밖에서(*extra nos*) 이루어진 칭의의 법정적 측면이 약화된다는 것이 맥코맥의 비판이다.¹²

이 두 가지 비판에 더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도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신격화를 논의할 때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로 인식된다. 첫째, ‘신격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혹은 불명확성이다. 앞서 맥코맥이 이해하는 신격화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것에 참여함”이라고 언급하였다. 과연 맥코맥은 ‘신격화’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이 문제는 ‘신격화’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가 의존하고 있는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Gregory Palamas, c.1296-1357/1359)의 신학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고,¹³ 또 다른 한편으로 헬라 교부들의 ‘신격화’에 대한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다.¹⁴ 이 두 측면은 팔라마

504-529.

11 McCormack, “What’s at Stake?”, 111.

12 McCormack, “What’s at Stake?”, 82.

13 Gösta Hallonsten, “Theosis in Recent Research: A Renewal of Interest and a Need for Clarity”, in Michael J. Christensen and Jeffery A. Wittung ed.,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Deification in the Christian Traditio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281-293; Yannis Spiteris, *Palamas: La grazia e l’esperienza: Gregorio Palamas nella discussione teologica* (Roma: Lipa, 1998), 79; cf. Georgios I. Mantzaridis, “Insegnamento di Gregorio Palamas intorno alla divinizzazione dell’uomo”, in *Palamika* (Tessalonica: Pournaras P. S., 1983), 179-195.

14 Gavrilyuk, “The Retrieval of Deification”, 647-648: “the *initial* impetus [for deification] did not come from the study of the Church Fathers... [but from] the idea of divine humanity (*Sophia*) developed by Vladimir Soloviev in the 19th century.”

스 신화에 대한 이해가 헬라 교부들에 대한 이해로부터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내적 관련성을 지닌다.¹⁵ 둘째, 신격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이다. 신격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절들(시 82:6; 요 10:34; 요 17; 요일 3:2; 벧후 1:4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설득력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¹⁶ 신격화에 대한 이 두 가지 문제 역시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설득할 만큼 해결되어야 한다.

본고는 ‘신격화’와 관련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고는 신격화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베드로후서 1:4를 해석하여 신격화에 대한 성경 주석적 근거를 찾아볼 것이다. 또한, 헬라 교부 중 니사의 그레고리우스(Gregory of Nyssa, c.335-c.395)의 신격화 이해를 다루어 신격화에 대한 교부신학적 이해를 제시할 것이다.¹⁷ 이로써 본고는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신격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성경적, 교부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베드로후서 1:4

베드로후서 1:4를 주석할 때,¹⁸ 신격화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15 Hallonsten, “Theosis in Recent Research”, 286-287.

16 Carl Mosser, “The Greatest Possible Blessing: Calvin and Deificat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5 (2002), 36-57; 이 구절들에 대한 교부들의 용례에 대해서, Norman Russell, *The Doctrine of Deification in the Greek Patristic Tra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99, 146, 151.

17 본고에서 다루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 대한 연구는 저자의 다음 연구에 기초하고 있다. Chungman Lee, “Beyond the Realistic-Ethical Distinction in Deification: Reconsidering Norman Russell’s Assessment of Gregory of Nyssa”,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24(2022), 140-155; *Gregory of Nyssa, Augustine of Hippo, and the Filioque* (Leiden: Brill, 2021), 157-166; “Deification and Covenant: Gregory of Nyssa’s Thought on Deification”,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7 (2020), 103-124.

18 벧후 1:4 (NA²⁸): “Δι’ ὧν τὰ τίμια καὶ μέγιστα ἡμῖν ἐπαγγέλματα δεδωρόταται, ἵνα διὰ τούτων γένησθε θείας κοινωνοὶ φύσεως ἀποφνιγόντες τῆς ἐν τῷ κόσμῳ ἐν ἐπιθυμίᾳ φθορᾶς.”

언제인가? 둘째,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이 베드로후서 1:4에 대한 문법적 분석을 통해 제시될 수 없기에,¹⁹ 본 구절의 문맥인 베드로후서 1:3-11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때, 베드로후서 1:4c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ἀποφυγόντες τῆς ἐν τῷ κόσμῳ ἐν ἐπιθυμίᾳ φθορᾶς)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몇 주석가들은 베드로후서 1:4b와 c를 근접 문맥과 베드로후서 전체 문맥 안에서 미래 사건으로 본다.²⁰ 이들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4b와 4c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의 종말론적 목표의 두 측면으로 본다. 둘째, 이들은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썩어질 것”으로 번역한 “φθορά”를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물리적 의미(a physical sense)로 이해하여 성도들

19 뱌후 1:4b의 ἵνα에 대하여 다음의 문법 사항을 참고하라. Herbert W. Smyth and Gordon M. Messing,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493 (§ 2193a): “Hina [ἵνα] is the only purely final conjunction in that it does not limit the idea of purpose by the idea of time or of manner; and therefore never takes an (ken), since the purpose is regarded as free from all conditions.” 또한, 뱌후 1:4b-c에 나타나는 동사의 형태 (γέννησθε와 ἀποφυγόντες)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가리키지 않는다. “γέννησθε”는 아마도 행위의 시작(‘ingressive’) 혹은 행위의 효과(‘effective’)를 가리키는 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James M.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2 Peter 1:4 in Its Hellenistic Context*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2000), 47; Friedrich Blass and Albert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 Robert W. Fu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166 (§ 318). 혹은, 여기의 아오리스트(aorist) 시제는 실제적 실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D. Edmond Hiebert, *Second Peter and Jude: An Expository Commentary* (Greenville, SC: Unusual Publications, 1989), 48.

20 Richard Bauckham, *Jude, 2 Peter* (Waco, TX: Word Books, 1983), 182; Anton Vögtle, *Der Judasbrief, der 2. Petrusbrief* (Solothurn: Benziger, 1994), 141; Pieter Harry Robert van Houwelingen, *2 Petrus en Judas: testament in Tweevoud* (Kampen: Kok, 2011), 33-34; Martin G. Ruf, *Die heiligen Propheten, eure Apostel und Ich: metatextuelle Studien zum Zweiten Petrusbrief* (Tübingen: Mohr Siebeck, 2011), 256, 265; Hans J. Frey, *Der Brief des Judas und der zweite Brief des Petru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221-223.

이 종말에 해방될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주장은 해당 구절의 인접 문맥(벤험후 1:3-11), 특히 베드로후서 1:11이 파루시아(Parousia)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두 번째 주장은 베드로후서의 저자에 대한 주석가들의 평가에 근거한다. 주석가들은 이 편지의 저자가 당시 헬레니즘 종교의 배경에서 가시적 세계의 물체성(materiality)으로 인한 부패(corruptibility)를 가리키는 용어였던 $\phi\theta\theta\rho\acute{\alpha}\lambda\upsilon\tau\eta$ “정욕”으로 인한($\epsilon\nu\ \epsilon\pi\iota\theta\nu\mu\acute{\iota}\alpha$) 부패로 전환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평가한다.²²

주석가들의 종말론적 접근은 설득력 있다. 그러나 종말론적 접근이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베드로후서 1:4c에서 사용되고 있는 같은 동사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 사건을 가리키는 베드로후서 2:20을²³ 고려할 때, 베드로후서 1:4c는 회심(conversion)이나 세례(baptism)와 같은 과거 사건을 가리킬 수 있다.²⁴ 베드로후서 2:20에서 편지의 저자는 거짓 선생들이 머물러 있어야 했던 과거의 상태 혹은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 해당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²⁵ 세스라 시피크(Ceslas Spicq)는 이 상태 혹은 사건은 아마도 회심이거나 세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⁶

21 Bauckham, *Jude, 2 Peter*, p. 182; P. H. R. van Houwelingen, *De tweede trompet: de authenticiteit van de tweede brief van Petrus* (Kampen: Kok, 1988), 108. 본고는 이 해석을 아래에서 도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할 것이다.

22 전치사 $\epsilon\nu$ 은 여기에서 원인의 의미를 가진다. Ruf, *Die heiligen Propheten*, 256n9.

23 벤험후 2:20 (NA²⁸): “ $\text{E}\acute{\iota}\ \gamma\acute{\alpha}\rho\ \acute{\alpha}\rho\omicron\phi\upsilon\gamma\omicron\nu\tau\epsilon\varsigma\ \tau\acute{\alpha}\ \mu\acute{\alpha}\sigma\mu\alpha\tau\alpha\ \tau\omicron\upsilon\ \kappa\acute{\omicron}\sigma\mu\omicron\nu\ \epsilon\nu\ \epsilon\pi\iota\gamma\nu\acute{\omega}\sigma\epsilon\iota\ \tau\omicron\upsilon\ \kappa\upsilon\rho\acute{\iota}\omicron\nu\ \kappa\alpha\acute{\iota}\ \sigma\omega\tau\eta\rho\omicron\varsigma\ \text{I}\eta\sigma\omicron\upsilon\ \text{X}\rho\iota\sigma\tau\omicron\upsilon\ ,\ \tau\omicron\upsilon\tau\omicron\iota\varsigma\ \delta\epsilon\ \pi\acute{\alpha}\lambda\iota\nu\ \epsilon\mu\pi\lambda\alpha\kappa\acute{\epsilon}\nu\tau\epsilon\varsigma\ \eta\tau\tau\acute{\omega}\nu\tau\alpha\iota,\ \gamma\acute{\epsilon}\gamma\omicron\nu\epsilon\nu\ \alpha\upsilon\tau\omicron\iota\varsigma\ \tau\acute{\alpha}\ \xi\sigma\chi\alpha\tau\alpha\ \chi\epsilon\acute{\iota}\rho\omicron\nu\alpha\ \tau\omicron\omega\��\ \pi\rho\acute{\omega}\tau\omega\��.$ ” 여기에 사용된 “ $\acute{\alpha}\rho\omicron\phi\upsilon\gamma\omicron\nu\tau\epsilon\varsigma$ ”는 1:4c에서도 사용되고, “ $\tau\acute{\alpha}\ \mu\acute{\alpha}\sigma\mu\alpha\tau\alpha\ \tau\omicron\upsilon\ \kappa\acute{\omicron}\sigma\mu\omicron\nu$ ”라는 표현은 1:4c의 “ $\tau\eta\varsigma\ \epsilon\nu\ \tau\hat{\omega}\ \kappa\acute{\omicron}\sigma\mu\omega\ \phi\theta\theta\omicron\rho\acute{\alpha}\varsigma$ ”와 유사하다.

24 알버트 M. 월터스(Albert M. Wolters)는 벤험후 1:4c의 동사 “ $\acute{\alpha}\rho\omicron\phi\upsilon\gamma\omicron\nu\tau\epsilon\varsigma$ ”가 소유격과 함께 쓰이면서 법적 의미(legal sense)를 가진다고 주석하고, 동일한 동사가 벤험후 2:20절에 목적격과 함께 사용된 것과 비교한다. Albert M. Wolters, “Partners of the Deity: A Covenantal Reading of 2 Peter 1:4”, *Calvin Theological Journal* 25 (1990), 42. 그러나 마르틴 G. 루프(Martin G. Ruf)는 벤험후 1:4c의 해당 동사가 법적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소유격이 아니라 오히려 목적격을 가져야 한다고 분석한다. Ruf, *Die heiligen Propheten*, 256n10.

25 Ceslas Spicq, *Les Épîtres de Saint Pierre* (Paris: Lecoffre Gabalda, 1966), 212-213. 벤험후 2:18도 성도들이 머물러 있어야 했던 과거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47-48; Michael Green,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 and the General Epistle of Jude: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68), 25n1.

시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다. 베드로후서 1:4c의 도덕적 의미와 베드로후서 1:3-4와 1:5-9 간의 연결성이다.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은 베드로후서 1:4c의 “ἐν ἐπιθυμίᾳ”라는 표현이 당시 헬레니즘의 이원론을 수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그는 1:4b와 c가 죽음 이후 혹은 파루시아(Parousia)를 가리킨다고 주석하여, “ἐν ἐπιθυμίᾳ”에 의한 “φθορά”가 지니는 도덕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보컴과 달리 피터 H. 데이비즈(Peter H. Davids)는 “ἐν ἐπιθυμίᾳ”라는 표현으로 편지의 저자가 자신의 도덕적 관점과 헬레니즘적 이원론 간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석한다. 데이비즈는 이 구절에서 ἐπιθυμία는 히브리어 yetzer(drive)의 번역어로서 “세상에 있는 도덕적 부패의 뿌리”를 의미한다고 본다.²⁸ 그는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유대교 이원론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기에, 그는 해당 구절이 말하는 해방을 ἐπιθυμία로부터의 해방으로 이해하며, 이 해방은 “기독교에 입교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지속되는 과정”이다.²⁹

과거의 입교 이후 지속되는 과정으로서의 이해는 베드로후서 1:3-4와 1:5-9 사이의 연결성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³⁰ 특히 베드로후서 1:8의 전치사 εἰς의 역할이 중요하다.³¹ 편지의 저자는 이 전치사를 사용하여 편지의 수신자들과

26 Spicq, *Les Épitres*, 212; Bo Ivar Reicke, *The Epistles of James, Peter, and Jude*, 2nd ed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153. J. N. D. 켈리 역시 베후 1:4c가 세례를 가리키고 죄를 버림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보면서, 아오리스트 분사는 ‘확정적 행동’(a definitive act)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석한다. John Norman Davidson Kelly,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Jude* (London: A. & C. Black, 1969), 301-302. 로버트 E. 피치렐리(Robert E. Picirelli)의 이해도 유사하다. 그는 요셉 A. 로빈슨(Joseph A. Robinson)의 이해를 수정하면서 베후 1:3, 8, 그리고 2:20의 ἐπίγνωσις는 “기동(起動)적-결단적 의미”(an ingressive-decisive sense)를 가진다고 보고, 회심의 역동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Robert E. Picirelli, “Meaning of Epignosis”, *The Evangelical Quarterly* 47 (1975), 92; 로빈슨에 대해서는 Joseph A. Robinson, *St. Paul's Epistle to the Ephesians*, 2nd edn. (London: James Clarke & Co., 1904)을 참고하라.

27 Bauckham, *Jude, 2 Peter*, 183; Vögtle, *Der Judasbrief*, 140-141.

28 Peter H. Davids, *The Letters of 2 Peter and Jud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174-175.

29 Davids, *The Letters*, 176; Hiebert, *Second Peter*, 48-49.

30 Van Houwelingen, *2 Petrus en Judas*, 30-31.

31 몇몇 주석가들은 코이네(koine) 헬라어에서 전치사 ἐν과 εἰς 사이의 의미 차이가 약화되었고,

거짓 교사들에게서 각각 드러나는 두 가지의 지속적인 과정의 역동성을 대조시키고 있다. 베드로후서 1:9에서 거짓 교사들은 1:5-7에 기록된 덕의 부재로 말미암아 “맹인”이 되었고 “멀리 보지” 못한다고 저자는 책망한다. 이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ἐν) 머물러야 한다는 베드로후서 2:20을 고려할 때, 1:9의 비판은 거짓 교들이 진리를 보는 힘을 계속하여 잃고 있고, 베드로후서 1:5-7의 덕을 부인함으로써 진리를 향해(εἰς) 눈먼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³² 그러나 베드로후서 1:8에서 편지의 저자는 반대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베드로후서 1:5-7의 덕을 행함으로써, 편지의 수신자들은 자기 자신을 진리를 향해(εἰς) 어리석지 않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기초한(벤험 1:3) 더욱 심오한 지식에 도달하고,³³ 그리스도는 이들을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신다(벤험 1:4). 에릭 폭스(Eric Fuchs)와 피에르 레이몽(Pierre Reymond)이 주장하듯이, 여기에서 우리는 지식과 윤리 사이의 호혜성(reciprocity)을 볼 수 있다.³⁴ 신자들은 덕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아는 앎을 향해(εἰς) 더욱더 자란다. 이로써 신자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지속적으로 피할 수 있다. (벤험 1:4c)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베드로후서 1:4는 배타적으로 종말론적 상태 혹은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기독교에 입교하는 것과 관련된 회심 혹은 세례와 같은 과거의 사건 혹은 상태와 이로부터 시작되어 지속되는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εἰς가 ἐ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Bauckham, *Jude, 2 Peter*, 188; Kelly,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307-308; Davids, *The Letters*, 185. 그러나 본고는 전치사 εἰς의 본래적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이 두 전치사의 의미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장소를 가리킬 경우인데, 벤험 1:8의 εἰς는 장소를 가리키지 않는다. Blass and Debrunner, *A Greek Grammar*, 110-111n 205; Maximilian Zerwick, *Biblical Greek*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4), 35n106. 베드로후서에서 두 전치사가 상호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구절인 1:17에서도 의미의 구분은 필요해 보인다.

32 Vögtle, *Der Judasbrief*, 152-153; Bauckham, *Jude, 2 Peter*, 189.

33 Vögtle, *Der Judasbrief*, 151-152.

34 Eric Fuchs and Pierre Reymond, *La deuxième épître de saint Pierre: L'épître de saint Jude* (Neuchâtel: Delachaux & Niestlé, 1980), 57.

2.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베드로후서 1:4가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γέννησθε θείας κοινωνοὶ φύσεως)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κοινωνοὶ*와 *θεία φύσις*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에 대한 이해가 문맥 안에서의 전자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콧 J. 하퍼만(Scott J. Hafemann)은 “신성한 성품”에 대한 모든 존재론적 이해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φύσις*가 의미하는 바는 신성(divine being or essence)이 아니라, “행위 결정적 특성”(action-determined character) 혹은 “행위에서 표현되는 특성”(character expressed in actions)을 의미한다.³⁵ 이때, 하퍼만은 *φύσις*가 의미하는 특성을 하나님의 덕(virtues)과 연결한다.³⁶ 이런 하퍼만의 주장은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기독교론적 측면에 기초하여 확장될 수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서 *θεός*와 *θεῖος*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고 있고, 베드로후서 1:1-4에서 이 두 용어가 사용되면서 그리스도의 덕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베드로후서 1:1은³⁷ 하나의 관사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구주”(τοῦ θεοῦ ἡμῶν καὶ σωτῆρο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라고 부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θεός)이시다. 비록 베드로후서 1:2와 1:17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구분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전체는 하나님과

³⁵ Scott J. Hafemann, “‘Divine Nature’ in 2 Pet 1,4 within Its Eschatological Content”, *Biblica* 94 (2013), 92. 하퍼만은 윌터스가 이 용어를 “하나님”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을 비판한다. Hafemann, “Divine Nature”, 82-83. 하퍼만의 비판 이전에, P. H. R. 판 하우웰링엔(P. H. R. van Houwelingen)도 “*θεία φύσις*”가 관사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윌터스의 이해를 문법적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Van Houwelingen, *2 Petrus en Judas*, 34; Frey, *Der Brief*, 223.

³⁶ Hafemann, “Divine Nature”, 95-96. 하퍼만은 “특성” 혹은 “하나님의 덕”을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 그에게 이것은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종말론적 행위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특성”이다. 본고는 *θεία φύσις*가 특성 혹은 하나님의 덕을 가리킨다는 하퍼만의 의견을 수용하지만, 뱌후 1:3-4가 단지 종말론적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이미 설명하였다.

³⁷ *Συμεὼν Πέτρος δοῦλος καὶ ἀπόστολο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τοῖς ἰσότιμον ἡμῖν λαοῦσιν πίστιν ἐν δικαιοσύνῃ τοῦ θεοῦ ἡμῶν καὶ σωτῆρο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NA²⁸)

예수 그리스도를 날카롭게 구별하지 않는다.³⁸ 베드로후서 1:2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불분명함을 강조하고 있다.³⁹ 그리스도가 하나님일 때, 베드로후서 1:4b의 “신성한 성품”에서 사용된 형용한 *θεία*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attributes)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것이다. 이런 이해는 베드로후서 1:3의 *αὐτοῦ*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파악할 때 더 강화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인 “*τῆς θείας δυνάμεως αὐτοῦ*”(그의 신기한 능력)에서 *αὐτοῦ*는 베드로후서 1:1-2의 그리스도이시다.⁴⁰ 만일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θείας*라는 형용사는 불필요할 것이다.⁴¹

또한, *θεός*와 *θεῖος*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도 기독교적 이해를 요청한다. 특히, 베드로후서 1:1-3의 “의”(δικαιοσύνη), “영광”(δόξα), 그리고 “덕”(ἀρετή)이라는 용어가 그러하다. “의”는 베드로후서에서 대체로 의롭지 않은 거짓 선생들과 관련하여 도덕적 선(moral goodness)을 의미한다. 이 “의”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베드로후서 1:1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불편부당(不偏不黨)하심과 공정하심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⁴² 다른 두 단어는 이사일의(hendiadys)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선하심 혹은 덕에 탁월하심

38 Van Houwelingen, *2 Petrus en Judas*, 39.

39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30.

40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32; Bauckham, *Jude, 2 Peter*, 177. 더욱이, “능력”이라는 표현은 벵후 1:16에 명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된다.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32; Davids, *The Letters*, 169. 그러나 몇몇 주석가들은 “능력”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Kelly,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300; Vögtle, *Der Judasbrief*, 138-139. 이런 이해 또한 배제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앞서 설명하였듯이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계시되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판 하우윌링언은 “그의 신기한 능력”을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석하였다. Van Houwelingen, *De tweede trompet*, 102.

41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32.

42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41; Bauckham, *Jude, 2 Peter*, 168; Davids, *The Letters*, 162.

을 의미한다.⁴³ 이런 측면에서, 한스 J. 프라이(Hans J. Frey)가 주장하듯이, 베드로후서 1:5-7에 나타난 덕의 목록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덕에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⁴⁴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적인 덕을 가리킨다.⁴⁵

이런 이해는 *κοινωνοι*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노르베르트 바우메르트(Norbert Baumert)는 *koinonein*과 *metexein*의 의미를 구분하면서, 베드로후서 1:4b의 *κοινωνοι*는 참여(participation)를 의미하지 않고 베드로와 수신자들 간의 공통성(communion)을 의미한다고 주석하였다.⁴⁶ 그러나, 프라이는 바우메르트의 날카로운 구분이 해당 구절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바우메르트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알버트 M. 월터스(Albert M. Wolters)에 대한 P. H. R. 판 하우웰링언(P. H. R. van Houwelingen)의 비판도 눈여겨 봐야 한다.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저자가 동일하게 베드로임을 주장하면서, 판 하우웰링언은 베드로전서 5:1에서 *κοινωνός*의 의미는 계시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⁴⁸ 이때, 베드로후서 1:4b의 *κοινωνοι*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덕으로서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또한, 앞서 베드로후서 1:3-4와 1:5-9간의 관계성을 설명하였듯이, 편지의 저자는 수신자가 그리스도의 덕에 적합하도록 사는 덕스

43 Bauckham, *Jude, 2 Peter*, 178-9; Vögtle, *Der Judasbrief*, 137; Spicq, *Les Épitres*, 210; Starr, *Sharers in Divine Nature*, 43-44; Davids, *The Letters*, 171-172; Hafemann, “Divine Nature”, 93-94; Frey, *Der Brief*, 119.

44 Frey, *Der Brief*, 219, 225; also see J. Daryl Charles, *Virtue amidst Vice: The Catalog of Virtues in 2 Peter 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37.

45 Frey, *Der Brief*, 255. 벵후 1:4에 대한 프라이의 주석적 결론은 본고의 이해와 유사하다. 또한, 그가 자신의 주석적 결론을 신격화에 대한 오리게네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의 이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본고가 아래에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를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흥미롭다. 왜냐하면 그레고리우스의 신학은 오리게네스와 클레멘스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46 Norbert Baumert, *Koinonein und Metechein - Synonym?: eine umfassende semantische Untersuchung* (Stuttgart: Verlag Katholische Bibelwerk, 2003), 124-126. 월터스 역시 유사한 해석을 하고 있다. Wolters, “Partners of the Deity”, 32-34; Ruf, *Die heiligen Propheten*, 256n8.

47 Frey, *Der Brief*, 221.

48 Van Houwelingen, *2 Petrus en Judas*, 34.

러운 삶과⁴⁹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 사이에 호혜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자는 선 혹은 덕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신적인 덕에 참여하는 덕스러운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⁰

3. 요약

지금까지 본고는 베드로후서 1:4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구절이 말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적인 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이 참여는 과거의 회심 혹은 세례를 통해 기독교에 입교한 이후 파루시아(Parousia)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과정임을 보였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과정의 뿌리이면서도 참여의 과정을 통해 더욱더 강화된다. 종말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입성하고, 신적인 불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III.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

니사의 주교 그레고리우스가 아르모니우스(Armonius)에게 보낸 편지(*De professione Christiana*, GNO 8/1, 129-142)에 등장하는 다음의 문구는 인상적이다: “기독교의 이름은 위대한 약속이다.”⁵¹ 이것은 ‘기독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언인가를 다루면서 그레고리우스가 한 대답인데, 그 문맥은 신격화에 대한 논의이다.⁵² 동일한 편지에서 그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약속은 하나님의 모방함을 말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기도 한다.⁵³

49 위 각주 43 참조.

50 위 각주 33 참조.

51 Gregory, *Prof* (GNO 8/1, 136,23). 본고에 사용되는 그레고리우스의 작품명과 그것의 축약은 Friedhelm Mann, ed., *Lexicon Gregorianum: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Gregors von Nyssa* (Leiden: Brill, 1999-2014)를 따른다.

52 *Prof* (GNO 8/1, 136,23).

이런 그레고리우스의 주장은 베드로후서 1:4와 관련 있다. 비록 그레고리우스의 작품의 비평본을 만든 베르너 예거(Werner Jaeger)는 언급된 편지를 편집하면서 인용한 문장들을 베드로후서 1:4와 연관 짓지 않고 플라톤 작품들(*Theaetetus* 176b; *Respublica* 613b)과 연관 지어 주석하였지만,⁵⁴ 교부들의 성경 인용을 집중적으로 탐구한 *Biblia Patristica*는 베드로후서 1:4와의 관계성을 명시하고 있다.⁵⁵ 이것은 그레고리우스의 『아가서 강해』(*In canticum canticorum*, GNO 6)에 나타나는 유사한 주장과 해당 구절간의 관계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아가서 강해』의 비평본을 만든 헤르만 랑어벡(Hermann Langerbeck)은 지성에 해당하는 신부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한다는 것을 그레고리우스가 설명할 때, 이것을 예거가 언급하고 있는 동일한 플라톤 작품들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1:4와 연결 지었다.⁵⁶ 랑어벡과 *Biblia Patristica*가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생각과 베드로후서 1:4를 연결하는 것은 아래에서 그레고리우스 연구와 베드로후서 1:4에 대한 주석간의 유사성이 드러날 때, 더욱더 타당한 것이 된다.

본고는 이제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생각을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1)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정의와 $\phi\acute{\upsilon}\sigma\iota\varsigma$ 와 $\acute{\epsilon}\nu\acute{\epsilon}\rho\gamma\epsilon\iota\alpha$ 의 구분, 2) 신격화의 기독교론적 측면, 그리고 3) 연속적인 과정($\acute{\epsilon}\pi\acute{\epsilon}\kappa\tau\acute{\alpha}\sigma\iota\varsigma$)으로서의 신격화.

1.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정의: $\phi\acute{\upsilon}\sigma\iota\varsigma$ 와 $\acute{\epsilon}\nu\acute{\epsilon}\rho\gamma\epsilon\iota\alpha$ 구분

『팔복 강해』(*De beatitudinibus*, GNO 7/2) 중 다섯 번째 강해에서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정의를 찾을 수 있다.⁵⁷ 여기에서 신격화($\theta\epsilon\omicron\sigma\mu\omicron\iota\epsilon\tilde{\iota}\nu$)

⁵³ *Prof* (GNO 8/1, 137,22-3).

⁵⁴ *Prof* (GNO 8/1, 136).

⁵⁵ Jean Allenbach et al., *Biblia Patristica* (Pari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91), 5:407.

⁵⁶ *Cant* (GNO 6, 98,6-12). 후베르투스 R. 드롭너(Hubertus R. Drobner)도 이 대목과 베드로후서의 구절을 연결시킨다. Hubertus R. Drobner, *Bibelindex zu den Werken Gregors von Nyssa* (Paderborn: Selbstverlag, 1988), 121.

는 “신성에 참여”(θεόσητος κοινωνία)하는 것이며, 이는 팔복에 참여함(μετρούσία)으로 가능하다고 니사의 주교는 말한다.⁵⁸ 이 짧은 정의는 모든 행복(blessedness)은 행복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주님께서는 팔복을 가르치심으로써 행복 자체인 하나님 그분께 참여하는 방법을 계시하신 것이다. 또한,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에 대한 이해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그의 신학이 전제되어 있다. 창세기 1:26-27을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다.⁵⁹ 이것이 인간의 완전함이며, 이는 원형이신 하나님의 덕과 속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⁶⁰ 이

-
- 57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신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Jules Gross, Hans Urs von Balthasar, J. Daniélou, Walther Völker, David L. Balás, Ekkehard Mühlenberg, 그리고 Myrrha Lot-Borodine 등이 있다. 이런 연구에 대한 유용한 서지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Lewis Ayres, “Deification and the Dynamics of Nicene Theology: The Contribution of Gregory of Nyssa,”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49 (2005), 375-394; Giuseppe Ferro Garel, *Gregorio di Nissa: l’esperienza mistica, il Simbolismo, il Progresso spirituale* (Torino: Il leone verde, 2004), 9-15. 헬라교부신학에 나타나는 신격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Studer, “Divinizzazione”, 1458-62)를 찾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나 위-디오니시우스의 정의를 언급하는 것은 그레고리우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에 따르면, 신격화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가능한 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Dionysius the Areopagite, *EH* 1.3 [PG 3.376A]; Russell, *The Doctrine of Deification*, 1)
- 58 *Beat* 5 (GNO 7/2, 124,13-18). 여기에 ‘*koinonein*’과 ‘*metexein*’이 신격화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때, 이 두 동사는 그레고리우스의 신학 안에서 의미적 차이가 거의 없다. 그레고리우스는 신적 덕에 참여한다고 말할 때 이 두 동사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Prof* [GNO 8/1, 135,6-15])
- 59 *Or cat* 5 (GNO 3/4, 18,5-16); Jean Daniélou, *Platonisme et théologie mystique: essai sur la doctrine spirituelle de saint Grégoire de Nysse* (Paris: Aubier, 1944), 53; Claudio Moreschini, trans., *Gregorio di Nyssa: Opere dogmatiche* (Milano: Bompiani, 2014), 223.
- 60 *Op hom* 4, 5 (PG 44, 136C, 137B); Moreschini, *Gregorio di Nyssa*, 23-24. 안토니 메러딧(Anthony Meredith)를 따르면, 그레고리우스에게 닮음과 참여는 실제적으로 동의어이다 (cf. GNO 6, 271,11 and 280,11). 또한 헬레니즘 전통에서 *syngeneia pros ton theon*은 인간의 근원적이고 훼손되지 않는 조건이지만, 그레고리우스에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덕적 동화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이다. Anthony Meredith, “Gregory of Nyssa, De Beatitude inibus, Oratio I: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 5,3)”, in Hubertus R. Drobner and Alberto Viciano ed.,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the Beatitudes* (Leiden: Brill, 2000), 99-102; Chiara Somenzi, trans., *Gregorio di Nissa: Omelie sulle beatitudini* (Milano: Edizioni Paoline, 2011), 131.

완전함은 인간이 자유의지(προαίρεσις)로 하나님을 거부한 후 하나님께 동화 됨으로써 회복되어야 한다.⁶¹

하나님의 φύσις와 ἐνέργεια에 대한 구분을 이해할 때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정의는 더욱 분명하게 이해된다. 참여로서의 신격화를 이야기할 때, 그레고리우스는 하나님의 본성(φύσις)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에네르게이아’(ἐνέργεια)에⁶²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위해서 ‘διάστημα’라는 개념이 중요하다.⁶³ ‘간극’ 혹은 ‘사이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공간과 시간의 피할 수 없는 수평적 확장을 의미한다.⁶⁴ 그레고리우스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표현한다. 즉, 하나님께는 어떠한 간극도 해당하지 않지만, 모든 피조물은 간극에 종속되어져 있다. 인간의 지성, 개념적 사고, 그리고 언어는 모두 간극에 의해 제한된다. 간극에 제한되고 종속되는 인간은 모든 간극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⁶⁵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에네르게이아를 통해 알리셨다. 그레고리우스가 『팔복 강해』의 여섯 번째 강해에서 분명하게 밝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분의 에네르게이아(ταῖς ἐνεργείαις), 즉 “그분 주위의 것

61 그레고리우스의 προαίρεσις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Giampietro Dal Toso, *La nozione di 'proairesis' in Gregorio di Nissa: analisi semiotico-linguistica e prospettive antropologiche* (Frankfurt am Main: Lang, 1998); Dal Toso, “La nozione di proairesis in Gregorio di Nissa,” in Drobner and Viciano ed.,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the Beatitudes*, 569-580.

62 ἐνέργεια의 적절한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대체적으로 교부학자들은 이 단어를 번역하기보다 음역하여 사용한다. 그레고리우스의 *Contra Eunomium* (『에우노미우스 반박』, GNO 1, 2)을 영역한 스튜어트 G. 홀(Stuart G. Hall)은 음역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다양한 영어 단어(energy, activity, operation, 혹은 function) 중 ‘activity’가 그나마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Stuart G. Hall, “Gregory, Bishop of Nyssa: A Refutation of the First Book of the Two Published by Eunomius after the Decease of Holy Basil”, in Miguel Brugarolas ed.,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Leiden: Brill, 2018), 71; cf. Raymond Winling, ed. and trans., *Grégoire de Nysse, Contre Eunome, I.147-691* (Paris: Cerf, 2010), 46.

63 이 용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 목록은 다음을 참고하라. Scot Douglass, “Diastema”, in Lucas Francisco Mateo-Seco and Giulio Maspero ed., *The Brill Dictionary of Gregory of Nyssa* (Leiden: Brill, 2010), 227-228.

64 *Eun* 1.345, 355 (GNO 1, 129,5-11, 132,2-11).

65 *Eun* 2.69-70 (GNO 1, 246,14-21).

들”(what is around Him) 혹은 “그분에게 속한 것들”(what belongs to Him)이라 번역할 수 있는 “*τοῖς περὶ αὐτὸν*”을 통해 자신을 보이셨다.⁶⁶

*φύσις*와 *ἐνέργεια*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구분은 에우노미우스(Eunomius)와의 삼위일체론 논쟁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⁶⁷ 에우노미우스는 에네르게이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면서, 삼위일체 안에 ‘태어나게 하심’ 혹은 ‘창조’와 같은 행위를 이 용어로 설명하였다. 이때, 에네르게이아는 성부의 *οὐσία*의 외부적 행위로 이해되고, 그 자체로 실체적인 것으로 이해된다.⁶⁸ 이런 이해에서 에우노미우스는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의 *οὐσία*의 외부적 행위인 태어나게 하심, 곧 창조하심을 통해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는 에우노미우스의 이해를 따르면 성부라는 위격이 성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낳으심’ 혹은 ‘창조’라는 행위가 ‘아버지’가 된다고 비판하면서, 성령은 세 번째 위격이 아니라 다섯 번째 위격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이해가 가능해진다고 비판하였다.⁶⁹ 그레고리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에서 *οὐσία*의 외부적 행위를 통해 성부가 성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성자를 태어나게 하시는 행위는 성부이심과 별개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66 Beat 6 (GNO 7/2, 141,25-27): “Ὁ γὰρ τῆ φύσει ἄρατος, ὁρατὸς ταῖς ἐνεργείαις γίνεται, ἐν τισὶ τοῖς περὶ αὐτὸν καθορώμενος.”

67 Eun 1.205-222, 242-260; Lee, *Gregory of Nyssa*, 92-106. *φύσις*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이해는 다음을 참고하라. Johannes Zachhuber, *Human Nature in Gregory of Nyssa: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Leiden: Brill, 2000), 64-70 and *passim*; Zachhuber, “Once Again: Gregory of Nyssa on Universals”,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6 (2005), 75-98; Giulio Maspero, *Trinity and Man: Gregory of Nyssa’s Ad Ablabium* (Leiden: Brill, 2007), 1-27 and *passim*; Lenka Karfiková, “Ad Ablabium, Quod Non Sint Tres Dei”, in Volker H. Drecoll and Margitta Berghaus ed., *Gregory of Nyssa: The Minor Treatises on Trinitarian Theology and Apollinarianism* (Leiden: Boston: Brill, 2011), 141-142; Richard Cross, “Gregory of Nyssa on Universals”, *Vigiliae Christianae* 56 (2002), 372-410.

68 Eun 1.246-247 (GNO 1, 99,5-12).

69 Eun 1.249 (GNO 1, 99,20-24): cf. Eunomius, *Apologia* 25.4-5, 25.23-25, 28.14-15 (Richard P. Vaggione, ed. and trans., *Eunomius: The Extant Works* [Oxford: Clarendon Press, 1987], 66, 68, 74); Elias D. Moutsoulas, “La pneumatologie du Contra Eunomium I”, in Brugarolas ed., *Contra Eunomium I*, 558.

그레고리우스에게 “낳으심”은 성부의 위격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것과 그가 이삭의 아버지라는 것이 동일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⁷⁰ 에우노미우스를 비판하면서 그레고리우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에서는 *φύσις*와 *ἐνέργεια*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οἰκονομία*)을 설명할 때 *φύσις*와 *ἐνέργεια*에 대한 에우노미우스의 이해를 수정하면서 그레고리우스는 이 둘을 구분한다. 에우노미우스는 에네르게이아를 하나님의 *οὐσία*에 외부적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 자체로 실체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반면, 그레고리우스는 에네르게이아가 비실체적(*ἀνυπόστατον*)이지 않고 실체적이지만,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οὐσία*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한다.⁷¹ 그레고리우스는 에네르게이아를 “본성의 운동”(φύσεως κίνησης)으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을 둘러 있는”(περὶ τὸν θεὸν) 것으로 이해하였다.⁷² 에네르게이아는 “신성이 무엇인가”를 의미하지 않고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πως εἶναι)를 의미한다. 이런 구분을 통해 그레고리우스는 본질(what it is)에 있어 인간을 절대적으로 초월하는 신성이 경륜에서 그분의 에네르게이아를 통해 계시됨을 말한다. 에네르게이아가 신성의 본성적 운동일 때, 하나님의 에네르게이아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하는 것이 된다.

⁷⁰ *Eun* 3.8.30 (GNO 2, 250,1-7). 그레고리우스는 삼위일체의 내재적 관계와 관련하여 에네르게이아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베르나르 포티에(Bernard Pottier)의 지적은 정당하다. Bernard Pottier, *Dieu et le Christ selon Grégoire de Nysse* (Namur: Culture et Vérité, 1994), 116.

⁷¹ *Eun* 1.250-251 (GNO 1, 99,20-100,15).

⁷² “본성의 운동”(φύσεως κίνησης)에 대해 다음을 보라. *Eun* 1.211, 2.150, 2.228-230 (GNO 1, 211,15, 269,6-14, 292,10-293,9). “하나님의 본성을 둘러 있는”(περὶ τὸν θεὸ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음을 보라. *Abl* (GNO 3/1, 42,19-43,2); *Eun* 3.6.3, 3.5.60 (GNO 2, 186,9-15, 182,4-13). Cf. Maspero, *Trinity and Man*, 33-34, 52; Basile Krivochéine, “Simplicity of the Divine Nature and the Distinctions in God, According to St Gregory of Nyssa”,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21(1977), 83; Elias D. Moutsoulas, “«Essence» et «énergies» de Dieu selon St. Grégoire de Nysse”, *Studia Patristica* 18 (Leuven: Peeters, 1989), 517-528. Cf. Pottier, *Dieu et le Christ*, 107-118; Michel R. Barnes, *The Power of God: Δύναμις in Gregory of Nyssa's Trinitarian Theology*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1), 298-305; Karfiková, “Ad Ablabium”, 152-154.

에네르케이아는 그레고리우스의 영성 신학에서 신격화를 다룰 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적인 덕을 의미한다.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의 본성이 신성과 혼합될 그 어떤 가능성도 분명하게 거부한다.⁷³ 오히려, “복음서는 선한 에네르케이아들을 가능한 한 우리의 삶에서 모방하기를 명령한다.”⁷⁴ 이 “선한 에네르케이아들”은 성경 안에 계시된 신적인 덕이다. 신적인 덕을 모방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함을 참으로 모방”하는 것이다.⁷⁵

이처럼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는 하나님의 본성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신성의 본성적 운동이며 신적인 덕인 에네르케이아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그러므로 니사의 주교가 말하고자 하는 신격화는 신성과 인성의 혼합이거나 훼손이 아니라, 신적인 에네르케이아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적인 덕을 모방하는 것이다.⁷⁶

2. 신격화의 기독교론적 측면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는 기독교론적이다. 신격화의 그리스도-중심적 측면은 무엇보다 모방해야 할 신적인 덕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되었다는 그레고리우스의 주장에서 드러난다.⁷⁷ 신성의 본성적 운동인 에네르케이아는 그레고리우스의 영성 신학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신적인 덕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하심의 참된 모방”은 그리스도의 덕을 모방하는 것이다.⁷⁸ 이 그리스도-중심적 관점은 그리스도가 신격화의 원인이며 중개자이고 모형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진다.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성부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고 실현된다.

그리스도는 신격화의 원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신격화되고 하나

⁷³ *Prof* (GNO 8/1, 138,15-16): “οὐ τῆ φύσει τὴν φύσιν, τὴν ἀνθρωπίνην λέγω τῆ θεία, συγκρίνεσθαι κελεύε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⁷⁴ *Prof* (GNO 8/1, 138,17-18).

⁷⁵ *Prof* (GNO 8/1, 138,22-23).

⁷⁶ *Cant* (GNO 6, 98,6-12).

⁷⁷ *Prof* (GNO 8/1, 135,6-15).

⁷⁸ *Prof* (GNO 8/1, 138,22-23).

남께로 상승하였다. 그레고리우스에 따르면, 성육신은 신격화 자체이다.⁷⁹ 이런 생각은 라오디케아의 아폴리나리스(Apollinaris of Laodicea)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비판에서 더 분명하다. 아폴리나리스를 비판하면서 그레고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없이 인성 전체의 신격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⁸⁰ 이때, 성육신은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포괄한다. 그레고리우스에게 성육신은 탄생,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육신에 대한 이런 역동적 이해 역시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인성 전체가 신격화 되어야 한다는 그의 견해로부터 기인한다.⁸¹ 하나님은 출생과 죽음을 취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기고자 원하셨기 때문이다.⁸²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적인 불멸을 인간의 몸에게 주셨다.⁸³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인간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인간의 불멸하는 생명의 시작이다.⁸⁴

신격화의 원인이신 그리스도는 신격화의 중개자이시고 모형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개자이시다.

⁷⁹ *Or cat* 25 (GNO 3/4, 64,8-10).

⁸⁰ *Antirrh* (GNO 3/1, 169-170).

⁸¹ Raymond Winling, ed. and trans., *Grégoire de Nyssa, Discours catéchétique* (Paris: Les Éditions du Cerf, 2000), 60.

⁸² *Or cat* 32 (GNO 3/4, 77,23-78,3).

⁸³ *Or cat* 37 (GNO 3/4, 93-94).

⁸⁴ *Or cat* 25, 32 (GNO 3/4, 64,10-12, 78,7-10). 그레고리우스의 기독교론에서 주목할 점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인성을 강조하면서도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아스주의와 단성론자들을 비판하면서 사용된 부사를 - *ἀσυχύτως*(without confusion), *ἀτρέπτως* (without change), *ἀδιαιρέτως*(without division), 그리고 *ἀχωρίστως*(without separation) - 그레고리우스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irrh* (GNO 3/1, 152-153, 216-217); Jean-René Bouchet, “Le vocabulaire de l’union et du rapport des natures chez S. Grégoire de Nyssa”, *Revue Thomiste* 68(1968), 533-582; Giulio Maspero and Orlando S. Pinzón, “Essere, storia e misericordia: L’oikonomia nella discussione tra Gregorio di Nissa e Eunomio”, *Theologica Xaveriana* 186(2018), 12n43. 칼케돈 공의회 신조는 다음을 참고하라. Heinrich Denzinger et al.,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40th ed. (Freiburg: Herder, 2005), 103-105; Giuseppe L. Dossetti, *Il simbolo di Nicea e di Constantinopoli* (Roma: Herder, 1967), 244-250.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신성과 연합한다.⁸⁵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인성을 신성과 연합시키셨고, 인성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불멸하시는 성부께 이끄셨다. 중개자 안에서, 성부는 자격을 상실한 자들을 양자 삼으시고, 자신의 적들을 하나님께 참여하게 만드신다.⁸⁶ 또한 그리스도는 모형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을 위한 모범을 제공하신다.⁸⁷ 특히,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겸손의 모범이다. 『팔복 강해』의 첫 번째 강해에서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자발적인’ 겸손을 보이신 모범이심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자발성은 인간의 타락을 가져온 부패한 자유의지(*προαίρεσις*)를 위한 해독제이다.⁸⁸

그리스도-중심적 신격화의 특징은 또한 성례에서도 드러난다. 그레고리우스에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의 신격화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방편이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세례를 통해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시작한다.⁸⁹ 세례의 모방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하여 불멸로 이끌며,⁹⁰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한다.⁹¹ 성찬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을 유지한다. 죄로 부패한 몸은 불멸을 위한 약이 필요하며, 신화되고 불멸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 약이다.⁹²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며 이 몸에 의해 양분을 받는다.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들의 몸은 신적인 불멸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한다.⁹³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일어난 신격화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경륜에 따라 지속되게 하신다.⁹⁴ 성찬은 신자들의 몸이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덕을

85 *Perf* (GNO 8/1, 204,17-206,14).

86 *Perf* (GNO 8/1, 206,1-9).

87 *Perf* (GNO 8/1, 194,14-195,8).

88 그레고리우스가 ‘겸손’의 덕을 강조한 것은 덕에 대한 당시의 개념의 변혁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겸손은 당시에 권장할 만한 덕의 목록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Cf. Meredith, “Gregory of Nyssa”, 108.

89 *Or cat* 35 (GNO 3/4, 86,6-19).

90 *Or cat* 33 (GNO 3/4, 82,5-14)

91 *Or cat* 35 (GNO 3/4, 89,5-11).

92 *Or cat* 37 (GNO 3/4, 93,1-19).

93 *Or cat* 37 (GNO 3/4, 93,19-94,1).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령한 음식과 음료”(고전 10:3-4)라고 부른 이유이다.⁹⁵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신격화에 대한 약속을 통해 신자들이 “악과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덕을 모방하도록 권고하신다.⁹⁶ 그분 자신이 인간의 온전한 신격화의 약속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특히, 그레고리우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팔복 중⁹⁷ 여덟 번째 복을 약속으로 주셨다고 이해한다.⁹⁸ 스테반은 이 약속에 힘입어 박해를 이긴 모범이다.⁹⁹ 『팔복 강해』 중 여덟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그레고리우스 자신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청중들을 격려한다.¹⁰⁰

그레고리우스가 기독교가 신격화를 위한 위대한 약속이라고 말한 것은¹⁰¹ 그리스도의 말씀, 세례, 그리고 성찬을 통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하나님께 참여함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3. 영속적인 과정(ἐπέκτασις)으로서의 신격화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생각의 마지막 특징은 그리스도-중심적 신격화가 영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그레고리우스는 ‘ἐπέκτασις’라 부른다. 인간은 끝없이 창조주를 모방하고 반영하도록 창조되었다.¹⁰²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과정은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격화의 과정

94 *Or cat* 37 (GNO 3/4, 97,20-98,6).

95 *Perf* (GNO 8/1, 190,16-23).

96 *Perf* (GNO 8/1, 212,17-213,1).

97 *Beat* (GNO 7/2, 91,3-5, 119,10-13, 140,8-12, 145,20-146,2, 151,27-152,1, 161,2-5).

98 *Beat* 8 (GNO 7/2, 165,14-17).

99 *Beat* 8 (GNO 7/2, 165,17-29).

100 *Beat* 8 (GNO 7/2, 170,18-24).

101 *Prof* (GNO 8/1, 136,6-9, 136,23, 137,22-23).

102 오리게네스(Origenes, c.185-c.253)는 영혼이 선에 대한 포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주장하였다. (*De principiis* 1.8.4) 이러한 오리게네스의 생각을 그레고리우스는 수정하고 있다. Manlio Simonetti, ed. and trans., *Gregorio di Nissa: La vita di Mosè* (Roma: Fondazione Lorenzo Valla, 2011), xxxiii. 그레고리우스는 인간 본성이 지닌 가변성이 단계적으로 신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이 가변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Perf* (GNO 8/1, 213,1-214,4).

은 인간이 끝없이 신격화 되어 가면서도 ‘어떠한 간극($\delta\acute{\alpha}\sigma\tau\eta\mu\alpha$)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구분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는 원인이 되고, 중개자이시고, 그리고 모형이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에 서야 하는 반석이라고 부른 이유도 동일하다. (고전 10:4)¹⁰³ 더욱이, 만리오 시모네티(Manlio Simonetti)가 지적하였듯이, 그리스도는 단순히 바위일 뿐 아니라 끝없는 신격화 과정($\acute{\epsilon}\pi\acute{\epsilon}\kappa\tau\acute{\alpha}\sigma\iota\varsigma$)의 추동력이자 목표이시다.¹⁰⁴ 하나님을 향한 신격화의 추동력은 인간의 가능성 혹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다.¹⁰⁵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한 후에는 이 추동력이 그리스도이시다. 끝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참여해야 하는 과정으로서의 온전한 신격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4. 요약

지금까지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 사상을 살펴보았다. 기독교는 신격화에 대한 약속이다. 이때, 신격화는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그분의 에네르게이아에 영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격화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적인 덕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신격화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신격화의 원인, 중개자, 그리고 모범이시다. 그분은 끝없는 과정($\acute{\epsilon}\pi\acute{\epsilon}\kappa\tau\acute{\alpha}\sigma\iota\varsigma$)인 신격화의 반석이고, 추동력이며, 목표이시다. 이 과정은 그리스도의 말씀, 세례, 그리고 성찬에 의해 약속되었고, 확증되었으며, 그리고 유지된다. 이 과정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구분한다.¹⁰⁶

¹⁰³ *Perf* (GNO 8/1, 192,15); *Vit Moys* 2.244 (GNO 7/1, 118,20).

¹⁰⁴ Simonetti, *La vita di Mosè*, 327; *Vit Moys* 2.244 (GNO 7/1, 118,13-24); *Beat 4* (GNO 7/2, 122,25-123,3); cf. 빌 3:12-13. 이레네우스(Irenaeus of Lyon, c.130-c.202)와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하면서 그 반석 뒤에 모세가 숨어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고 설명한다. 그레고리우스는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유비를 다음의 두 측면에서 발전시켰다: 1) 그리스도는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상승하기 위해 밟고 서야 하는 단단한 근거이시다, 2)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도달하고 상과 씬을 얻어야 하는 마지막 목표이시다.

¹⁰⁵ 이런 측면에서 그레고리우스는 펠라기우스주의와 다르다.

¹⁰⁶ 그레고리우스의 신격화의 성령론적 측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충만,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과 신격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의 성령론에 대한 크리스토퍼 빌리의 비판 재고”,

IV. 베드로후서 1:4과 그레고리우스

지금까지 살펴본 베드로후서 1:4과 신격화에 대한 그레고리우스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보여준다.

첫째, 신격화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과정인데, 이때 이 과정은 신성 자체(φύσις)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덕을 그레고리우스는 “신성의 본성적 운동”(φύσεως κίνησης)으로서 에네르게이아(ἐνέργεια)라 불렀고, 베드로후서 1:4의 φύσις는 “행위 결정적 특성”(action-determined character) 혹은 “행위에서 표현되는 특성”(character expressed in action)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때, 신격화는 신성과 인성의 혼합이 아니며, 오히려 두 본성의 구분을 유지한다.

둘째, 신격화는 그리스도-중심적이다. 베드로후서 1:4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위한 뿌리이며, 동시에 이 참여의 과정을 통해 이 지식이 더욱더 강화된다고 말한다. 또한 이 구절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적인 덕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한다. 그레고리우스도 유사하다. 신격화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이 참여해야 할 신적인 덕을 계시하셨고, 신격화의 원인, 중개자, 그리고 모범이시다. 이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신격화가 시작되는 반석이시며, 끝없는 신격화의 과정(ἐκτετατός)의 추동력이시고 목표이시다.¹⁰⁷

셋째, 그리스도 중심적 신격화는 성례와 관련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신격화의 약속이시고, 세례와 성찬을 베푸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심으로써, 신격화의 과정이 시작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신다. 이런 성례를 가진 기독교는 신격화의 위대한 약속이다.

「개혁논총」 제52권 (2020), 9-33.

107 벤후 1:4절은 파루시아 이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레고리우스는 오리게네스의 약점을 수정하기 위해 신격화의 과정이 끝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V. 결론

본고는 시작하면서 20세기 중후반부터 신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제로 소개된 신격화에 대한 개혁주의 신학이 제기하는 질문과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 본성 간의 존재론적 구분의 약화의 문제이다. 둘째, 구원론적 측면의 문제로서, 신격화가 우리 밖에서(*extra nos*) 이루어진 칭의의 법정적 측면을 약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신격화’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혹은 불명확성이다. 넷째, 신격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이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베드로후서 1:4와 그레고리우스는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1:4와 그레고리우스가 말하는 신격화 혹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혹은 본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 차이는 희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덕에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신격화이다.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에네르게이아에 참여하는 신격화는 끝없이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존재론적 차이를 영원히 유지한다. 이런 대답을 제시하면서 네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의 베드로후서 1:4 주석은 개혁주의 신학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격화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도 베드로후서 1:4와 그레고리우스의 기독교 중심적 신격화는 해안을 제공한다. 그레고리우스와 베드로후서 1:4에 ‘법정적 칭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저자와 니사의 주교는 모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인간 본성의 내재적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가능성, 곧 은혜임을 강조한다. 신격화 자체이신 그리스도는 신격화의 원인, 중개자, 그리고 모범이시고, 반석, 추동력, 그리고 목표이다. 신격화는 시작에서부터 인간론적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론적 사건이다. ‘법정적 칭의’를 통해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구원의 가능성과 시작이 ‘우리 밖에’(*extra nos*) 있다는 것일 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신격화 역시 ‘우리 밖에’ 있는 기독교론적 가능성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차 문헌

- Callahan, Johannes F., ed. *Gregorii Nysseni De Beatitudinibus*. Vol. 7, pars 2,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tc.]: E. J. Brill, 1992.
- Jaeger, Werner, ed. *Contra Eunomium Libri*. Vols. 1 and 2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 J. Brill, 1960.
- _____, ed. *De perfectione*. In *Gregorii Nysseni Opera Ascetica*. Vol. 8, pars 1,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 J. Brill, 1952.
- _____, ed. *De professione Christiana*. In *Gregorii Nysseni Opera Ascetica*. Vol. 8, pars 1,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 J. Brill, 1952.
- Langerbeck, Hermann, ed. *In canticum canticorum*. Vol. 6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 J. Brill, 1960.
- Migne, J., ed. *De Hominis Opificio*. Patrologia Graeca vol. 44.
- Mühlenberg, Ekkehard, ed. *Gregorii Nysseni Oratio Catechetica*. Vol. 3, pars 4,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tc.]: E. J. Brill, 1996.
- Müller, Fridericus, ed. *Antirrheticus Adversus Apolinarium*. In *Gregorii Nysseni Opera Dogmatica Minora*. Vol. 3, pars 1,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 J. Brill, 1958.
- Musurillo, Herbertus, ed. *Gregorii Nysseni De Vita Moysis*. Vol. 7, pars 1, of *Gregorii Nysseni Opera*. Leiden: E. J. Brill, 1964.

2차 문헌

- Allenbach, Jean, et al. *Biblia Patristica*. Vol. 5. Pari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1991.
- Ayres, Lewis. "Deification and the Dynamics of Nicene Theology: The Contribution of Gregory of Nyssa."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49, no. 4 (2005), 375-394.

- Barnes, Michel R. *The Power of God: Δύναμις in Gregory of Nyssa's Trinitarian Theology*.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1.
- Bauckham, Richard. *Jude, 2 Peter*. Word Biblical Commentary 50. Waco, TX: Word Books, 1983.
- Baumert, Norbert. *Koinonein und Metechein - Synonym?: eine umfassende semantische Untersuchung*, Stuttgarter Biblische Beiträge 51. Stuttgart: Verlag Katholische Bibelwerk, 2003.
- Blass, Friedrich, and Albert Debrunner.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ranslated by Robert W. Funk.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 Bouchet, Jean-René. "Le vocabulaire de l'union et du rapport des natures chez S. Grégoire de Nysse." *Revue Thomiste* 68 (1968), 533-582.
- Carl E. Braaten and Robert W. Jenson, eds. *Union with Christ: The New Finnish Interpretation of Luther*. Grand Rapids: Eerdmans, 1998.
- Cross, Richard. "Gregory of Nyssa on Universals." *Vigiliae Christianae* 56 (2002), 372-410.
- Dal Toso, Giampietro. "La nozione di *proairesis* in Gregorio di Nissa." In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the Beatitudes: An English Version with Commentary and Supporting Studies: Proceeding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Gregory of Nyssa, Paderborn, 14-18 September 1998*, edited by Hubertus R. Drobner and Alberto Viciano, 569-580.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52. Leiden: Brill, 2000.
- _____. *La nozione di 'proairesis' in Gregorio di Nissa: Analisi semiotico-linguistica e prospettive antropologiche*. Patrologia 5. Bern; Frankfurt am Main: Lang, 1998.
- Daniélou, Jean. *Platonisme et théologie mystique: Essai sur la doctrine spirituelle de saint Grégoire de Nysse*. Paris: Aubier, 1944.
- Davids, Peter H. *The Letters of 2 Peter and Jude*. The Pillar New Testament

-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2006.
- Denzinger, Heinrich, et al. *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40th ed. Freiburg: Herder, 2005.
- Dossetti, Giuseppe L. *Il simbolo di Nicea e di Constantinopoli*. Roma: Herder, 1967.
- Douglass, Scot. "Diastema." In *The Brill Dictionary of Gregory of Nyssa*, edited by Lucas Francisco Mateo-Seco and Giulio Maspero, 227-228.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99. Leiden: Brill, 2010.
- Drobner, Hubertus R. *Bibelindex zu den Werken Gregors von Nyssa*. Paderborn: Selbstverlag, 1988.
- Ferro Garel, Giuseppe. *Gregorio di Nissa: L'esperienza mistica, il simbolismo, il progresso spirituale*. Torino: Il leone verde, 2004.
- Frey, Hans J. *Der Brief des Judas und der zweite Brief des Petrus*. Theologischer Hand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15/2.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2015.
- Fuchs, Eric, and Pierre Reymond. *La deuxième épître de saint Pierre: L'épître de saint Jude*. Commentaire du Nouveau Testament 13b. Neuchâtel: Delachaux & Niestlé, 1980.
- Gavrilyuk, Paul L. "The Retrieval of Deification: How a Once-Despised Archaism Became an Ecumenical Desideratum." *Modern Theology* 25, no. 4 (2009), 647-59.
- Green, Michael. *The Second Epistle General of Peter and the General Epistle of Jude: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18.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68.
- Habets, Myk. *Theosis in the Theology of Thomas Torrance*. Ashgate New Critical Thinking in Religion, Theology, and Biblical Studies. Farnham, England: Ashgate, 2009.
- Hafemann, Scott J. "'Divine Nature' in 2 Pet 1,4 within Its Eschatological

- Content.” *Biblica* 94, no. 1 (2013), 80-99.
- Hall, Stuart G. “Gregory, Bishop of Nyssa: A Refutation of the First Book of the Two Published by Eunomius after the Decease of Holy Basil.” In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edited by Miguel Brugarolas, 61-72. Leiden: Brill, 2018.
- Hallonsten, Gösta. “Theosis in Recent Research: A Renewal of Interest and a Need for Clarity.” In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Deification in the Christian Traditions*, edited by Michael J. Christensen and Jeffery A. Wittung, 281-293.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7.
- Hiebert, D. Edmond. *Second Peter and Jude: An Expository Commentary*. Greenville, SC: Unusual Publications, 1989.
- Karfíková, Lenka. “Ad Ablabium, Quod Non Sint Tres Dei.” In *Gregory of Nyssa: The Minor Treatises on Trinitarian Theology and Apollinarism*, edited by Volker H. Drecoll and Margitta Berghaus, 131-168.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106. Leiden; Boston: Brill, 2011.
- Krivochéine, Basile. “Simplicity of the Divine Nature and the Distinctions in God, According to St Gregory of Nyssa.” *St. Vladimir’s Theological Quarterly* 21, no. 2 (1977), 76-104.
- Kelly, John Norman Davidson. *A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eter and of Jude*.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ndon: A. & C. Black, 1969.
- Lee, Chungman. “Deification and Covenant: Gregory of Nyssa’s Thought on Deification.”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17 (2020), 103-124.
- _____. *Gregory of Nyssa, Augustine of Hippo, and the Filioque*.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169. Leiden: Brill, 2021.
- _____. “Beyond the Realistic-Ethical Distinction in Deification: Reconsidering Norman Russell’s Assessment of Gregory of Nyssa.”

- International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24, no.2 (2022), 140-155.
- McCormack, Bruce L. "What's at Stake in Current Debates over Justification?" In *Justification: What's at Stake in the Current Debates*, edited by Mark Husbands and Daniel J. Treier, 81-117.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4.
- _____. *Orthodox and Modern: Studies in the Theology of Karl Barth*.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08.
- _____. "Union with Christ in Calvin's Theology: Grounds for a Divinization Theory?" In *Tributes to John Calvin: A Celebration of His Quincentenary*, ed. David W. Hall, 504-529.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2010.
- Mann, Friedhelm, ed. *Lexicon Gregorianum: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Gregors von Nyssa*. Leiden: Brill, 1999-2014.
- Mannermaa, Tuomo. *Der im Glauben gegenwärtige Christus: Rechtfertigung und Vergottung: zum ökumenischen Dialog*. Hannover: Lutherisches Verlagshaus, 1989.
- Mantzaridis, Georgios I. "Insegnamento di Gregorio Palamas intorno alla divinizzazione dell'uomo." In *Palamika*, 179-95. Tessalonica: Pournaras P. S., 1983.
- Maspero, Giulio. *Trinity and Man: Gregory of Nyssa's Ad Ablabium*.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86. Leiden: Brill, 2007.
- Maspero, Giulio, and Orlando S. Pinzón. "Essere, storia e misericordia: L'oikonomia nella discussione tra Gregorio di Nissa e Eunomio." *Theologica Xaveriana* 186 (2018), 1-24.
- Meredith, Anthony. "Gregory of Nyssa, *De Beatitudinibus*, Oratio I: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Mt 5,3)." In *Gregory of Nyssa: Homilies on the Beatitudes: An English Version with Commentary and Supporting Studies: Proceedings of the Eighth International Colloquium on Gregory*

- of Nyssa, Paderborn, 14-18 September 1998*, edited by Hubertus R. Drobner and Alberto Viciano, 93-109.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52. Leiden: Brill, 2000.
- Moreschini, Claudio, trans. *Gregorio Di Nyssa: Opere Dogmatiche*. Il Pensiero Occidentale. Milano: Bompiani, 2014.
- Mosser, Carl. "The Greatest Possible Blessing: Calvin and Deificati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55 (2002), 36-57.
- Moutsoulas, Elias D. "«Essence» et «énergies» de Dieu selon St. Grégoire de Nysse." *Studia Patristica* 18 (1989), 517-528.
- _____. "La pneumatologie du *Contra Eunomium I*." In *Gregory of Nyssa: Contra Eunomium I*, edited by Miguel Brugarolas, 557-568. Leiden: Brill, 2018.
- Oswald Bayer et al., eds. *Caritas Dei: Beiträge zum Verständnis Luthers und der gegenwärtigen Ökumene. Festschrift für Tuomo Mannermaa zum 60. Geburtstag*. Helsinki: Luther-Agricola-Gesellschaft, 1997.
- Picirelli, Robert E. "Meaning of Epignosis." *The Evangelical Quarterly* 47 (1975), 85-93.
- Pottier, Bernard. *Dieu et le Christ selon Grégoire de Nysse*, Ouvertures 12. Namur: Culture et Vérité, 1994.
- Reicke, Bo Ivar. *The Epistles of James, Peter, and Jude*. 2nd edn.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 Ruf, Martin G. *Die heiligen Propheten, eure Apostel und Ich: metatextuelle Studien zum Zweiten Petrusbrief*.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300.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Russell, Norman. *The Doctrine of Deification in the Greek Patristic Tradition*. The Oxford Early Christian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Simonetti, Manlio, ed. and trans., *Gregorio di Nissa: La vita Di Mosè*.

- Scrittori Greci e Latini. Roma: Fondazione Lorenzo Valla, 2011.
- Smedes, Lewis B. *Union with Christ: A Biblical View of the New Life in Jesus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83.
- Smyth, Herbert W., and Gordon M. Messing.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Somenzi, Chiara, trans. *Gregorio di Nissa: Omelie sulle beatitudini*. Letture Cristiane del Primo Millennio 47. Milano: Edizioni Paoline, 2011.
- Spicq, Ceslas. *Les Épîtres de Saint Pierre*. Sources Bibliques 4. Paris: Lecoffre Gabalda, 1966.
- Spiteris, Yannis. *Palamas: La grazia e l'esperienza: Gregorio Palamas nella discussione teologica*. Roma: Lipa, 1998.
- Starr, James M. *Sharers in Divine Nature: 2 Peter 1:4 in Its Hellenistic Context*. Coniectanea Biblica New Testament Series 33.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2000.
- Studer, Basil. "Divinizzazione." In *Nuovo dizionario patristico e di antichità cristiane*, edited by Angelo di Berardino O.S.A. and Gianluca Pilara, 1:1458-62. Genova: Marietti, 2006.
- Vaggione, Richard P., ed. and trans. *Eunomius: The Extant Works*. Oxford: Clarendon Press, 1987.
- Van Houwelingen, Pieter Harry Robert. *De tweede trompet: de authenticiteit van de tweede brief van Petrus*. Kampen: Kok, 1988.
- _____. *2 Petrus en Judas: testament in Tweevoud*. Commentaar op het Nieuwe Testament. Kampen: Kok, 2011.
- Vögtle, Anton. *Der Judasbrief, der 2. Petrusbrief*. Evangelisch-kathol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22. Solothurn: Benziger, 1994.
- Von Harnack, Adolf. *History of Dogma*. Translated by Neil Buchanan. 3 Vols. London: Williams & Norgate, 1896-1899.

- Winling, Raymond, ed. and trans. *Grégoire de Nyssa, Discours catéchétique*. Sources chrétiennes 453. Paris: Les Éditions du Cerf, 2000.
- _____. *Grégoire de Nyssa, Contre Eunome, I.147-691*. Sources Chrétiennes 524. Paris: Cerf, 2010.
- Wolters, Albert M. “‘Partners of the Deity’: A Covenantal Reading of 2 Peter 1:4.” *Calvin Theological Journal* 25 (1990), 28-44.
- Zachhuber, Johannes. *Human Nature in Gregory of Nyssa: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Supplements to Vigiliae Christianae 46. Leiden: Brill, 2000.
- _____. “Once Again: Gregory of Nyssa on Universals.”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56 (2005), 75-98.
- Zerwick, Maximilian. *Biblical Greek*.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1994.
- Zorgdrager, Heleen E. “On the Fullness of Salvation: Tracking Theosis in Reformed Theology.”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8, no. 4 (2014), 357-381.
- 이충만.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과 신격화: 니사의 그레고리오스의 성령론에 대한 크리스토퍼 빌리의 비판 재고.” 『개혁논총』 52 (2020), 9-33.

[Abstract]

2 Peter 1:4 and Deification

Chung Man Lee

(Korea Theological Seminary, Assistant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The notion of deification(*θεοποίησις*) or divinization(*θέωσις*) has fascinated theologians from different traditions over a century. Among Lutheran theologians, Tuomo Mannermaa(1937-2015), who found “the New Finnish School” of interpretation of Martin Luther’s theology, accepted the theme of deification positively in the Lutheran tradition. Among Reformed theologians, Thomas F. Torrance(1913-2007) sought to reconcile the theme of deification wi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Yet the theme of deification, which appears as a *mysterium fascinans et tremendum* for Reformed theologians, has four issues. First, deification could end up blurring the Creator-creature distinction; second, deification undermines the forensic imputation of justification *extra nos*; third, the definition of deification appears to be diverse or unclear; lastly, deification needs to be explained by biblical exegetic studies.

This paper attempts to contribute to solving the four issues, which have been discussed by Reformed theologians. It provides biblical exegetic grounds for deification by interpreting 2 Peter 1:4, and shows patristic-theological notion of deification by a study of Gregory of Nyssa(c.335-c.395). Based on the biblical and patristic studies, the paper argues that deification of 2 Peter 1:4 and of Gregory is participation in the virtues(*ἐνέργεια*) which Christ as

“our God and Lord” revealed, not participation in God’s essence(*οὐσία*) or nature(*φύσις*). Besides, it argues that christocentric deification revealed by 2 Peter 1:4 and Gregory is not a possibility of human nature but christological possibility *extra nos*, and that deification is relevant to what the Reformed tradition stresses with forensic justification.

Key Words: Deification, 2 Peter 1:4, Gregory of Nyssa, *οὐσία(φύσις), ἐνέργεια*, Forensic Justification

